

지역 소식통

부안군, '1회용품 제로의 날' 캠페인 전개

부안군은 지난 10일 '1회용품 제로(Zero)의 날'을 맞아 청사 입구에서 친환경 캠페인을 운영하며 공공기관에서부터 1회용품 줄이기 실천에 적극 나섰다.

군은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회의 시 1회용 종이컵·페트병의 사용을 금지하고 청사 내 대화용품 사용을 권장하며 공공기관에서 선도적으로 1회용품 줄이기에 앞장서기로 했다.

특히 매달 10일은 1회용품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청내 방송과 내부시스템 게시판에 홍보문을 게시하고 연말평가에서 1회용품 줄이기에 앞장선 읍·면에 포상금을 부여하는 등 1회용품 사용 억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최형인 환경과장은 "1회용품 줄이기 실천이 공공기관에서부터 민간까지 범 국민적으로 자율적인 참여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시, 동물용 의약품 취급업소 일제 점검 나서

정읍시가 동물용 의약품 품질 향상과 안전한 의약품 유통 질서 확립에 나섰다.

시는 오는 18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지역 내 동물용 의약품 취급 업소를 대상으로 의약품 일제 점검과 약사 감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무자격자에 의한 진료행위와 부정·불량 동물약품의 유통 및 과도한 항생제 사용 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된다.

동물용 의약품 취급 업소 점검 추진 계획에 따라 동물용 의약품을 수거·검정 의뢰하는 등 부적합 제품의 유통을 사전 차단해 민고 구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다.

점검 대상은 지역 내 동물약품국과 동물병원 등 15개 업소다. 주요 점검내용은 수의사의 처방전 준수 여부와 판매업소의 시설 적정 여부 유효기간 경과 제품 판매 여부 등 점검할 계획이다. /정읍=김대환기자

정읍시, "빈집빌려드립니다"

20일까지 새 단장 빈집 6동 임차인 모집... 5년간 무상 임대

정읍시가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안전사고와 범죄 등 사회문제를 유발하는 빈집에 대해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한다.

시에 따르면, 오랜 기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아 흉물로 전락한 빈집은 미관 저해를 비롯해 안전사고와 범죄 발생 등 각종 사회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시는 1억2천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방치된 농촌 빈집을 새롭게 단장하는 희망하우스 빈집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한다.

희망하우스 빈집 리모델링 사업은 농촌지역 고령화와 인구감소에 따

라 방치되고 있는 빈집을 수리해 사회적 약자 또는 저소득 계층 가구를 지원하거나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사업이다.

주요 사업내용은 빈집 소유자에게 빈집재생 비용으로 최대 2천만원의 비용을 지원, 보일러 설치와 화장실 정비, 창호 교체 등을 통해 쾌적한 주거 공간으로 새 단장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후 빈집 소유자는 임차인에게 임대기간 5년 동안 무상으로 임대해야 한다. 시는 올해 사업추진을 위해 지난

3월부터 임대자(빈집 소유자)를 모집, 빈집의 노후도와 활용 가능성 등을 심사해 사업추진 대상 빈집 6동을 선정했다.

이와 관련해 시는 오는 20일까지 희망하우스 빈집 리모델링 사업 임차인을 모집한다.

임차인 신청 자격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정 등 저소득 계층과 귀농·귀촌인, 지방학생, 신혼부부, 65세 이상 노인 또는 부양자, 장애인 등이다.

접수 방법은 정읍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건축과 또는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접수하면 된다. /정읍=김대환 기자

전봉준장군 동상건립 작가 공모 본격 추진

고창군, 20일까지 전국 작가 공모

고창 전봉준장군동상건립위원회(정남기 진윤식 공동위원장)가 전봉준장군 동상건립 추진을 위해 작가 공모방식으로 변경해 동상건립을 본격화한다고 11일 밝혔다.

지난해부터 추진되었던 입찰방식 결과 "전봉준 장군과 고창의 동화를 새길만한 작품이 없어" 입찰업체와 협상을 마무리하고, 비교적 작가들의 우수하고 창의적인 작품이 가능한 작가 공모방식으로 변경하게 됐다.

작가공모 방식은 전국의 참신하고 역량있는 작가를 공모하여 전봉준장군의 위상과 동화농민혁명정신을 부각시킬 수 있는 작가를 선정(4명)한 후, 선정된 작가의 제안서(모형)를 심

사해 전봉준장군과 동화농민혁명정신을 가장 잘 표현한 최종 우수작을 선정하는 방식이다.

전봉준 장군 동상 등 제작 설치용역 제안공모는 오는 20일까지로 공모 신청 접수는 19~20일(2일간)이며, 고창군청 문화예술과에 제출하면 된다.

또 제안서(모형) 제출 전에 동화농민혁명과 고창의 역사성, 전봉준장군과 동화농민혁명의 정신, 그리고 전봉준장군 동상건립이 지니는 의미를 이해할 수 있도록 현장살필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현장살필회 불참자는 추후 제안서(모형) 제출이 불가하며, 동화농민혁명 전공 역사학자의 교육과 세계적인

동상작품에 대한 자료살필, 그리고 동화농민혁명 유적지 탐방을 통한 전봉준장군 동상제작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완성도를 끌어올릴 방침이다.

정남기 진윤식 공동위원장은 "후대에 길이 남길만한 작품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전문가 그룹으로 구성된 자문회의와 수시로 소통하면서 꼼꼼히 살펴보고 있다"면서 "전봉준 장군의 출생지이자 동화농민군의 혁명의 근원지인 무장기포가 전국적으로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동상건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세부사항은 고창군청 홈페이지 또는 조달청 나라장터 등을 참고하면 되고, 문의사항은 고창군청 문화예술과 동화인문팀(560-2461)으로 하면 된다. /고창=김영식 기자

호남유권자연합, 유기상 고창군수 예비후보 지지선언

정치개혁과 도덕성 회복 호남유권자연합이 11일 무소속 유기상 고창군수 예비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앞서 연합에서는 지난 4월 1일 광주 리퍼트네스스 광주호텔 샹그릴홀에서 의장단 고문단, 위원장단, 국장단들이 모여 지지 협력할 후보자를 추천받았다. 8명으로 구성된 심

사위원들의 심사와 토론을 거쳐 연합이 지지하는 후보자를 지난 4월 20일부터 발표해오고 있다.



유기상 후보 캠프를 방문한 호남유권자연합은 "고창군수로 재선되면 한 번 더 높고창이 될 수 있도록 큰 역

함을 해 달라"고 당부하면서, 지지선언 취지문을 전달했다.

호남유권자연합은 지지선언 취지문에서 "후보자 능력을 제의 지지후보 기준으로 도덕성과 개혁적인 인물인 유기상 후보가 고창군수로 선출 당선될 수 있도록 본 연합은 지지와 후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호남유권자연합은 김관영 전북도지사 예비후보를 지난 4월 27일에 지지지한 비영리시민 단체로 2000년 5월 20일에 창립되어 약 5000명의 일반회원과 936명의 임원으로 조직됐다.

/고창=김영식 기자



감곡면 동곡마을 자연가감곡면 동곡길 50-6에서 조성한 작약꽃 재배단지에서 다양한 색의 작약이 개화를 시작해 봄 나들이객의 발길을 모으고 있다.

함박웃음 닮은 작약꽃 '활짝'

정읍 감곡면 동곡마을, 자연가작약꽃 재배단지 5,000㎡ 규모 만개

감곡면 동곡마을 자연가(감곡면 동곡길 50-6)에서 조성한 작약꽃 재배단지에서 다양한 색의 작약이 개화를 시작해 봄 나들이객의 발길을 모으고 있다.

자연가는 작약꽃이 한방 한노화 대표 작물이라는 점에 착안해 새로운 소득원으로 육성하면서 관광객을 위한 명소를 꾸미기 위해 5,000㎡ 규모의 작약꽃 재배단지를 조성했다.

작약꽃 재배단지에는 탐방로와 벤치, 포토존 배 카페 등이 조성되어 있어 마을 주민뿐만 아니라 방문객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꽃이 아름다워 흔히 관광용으로 재배되는 작약꽃은 흰색, 붉은색, 분홍색 등 다양한 색의 꽃송이를 자랑하는 대표 봄꽃으로 함박웃음으로도 불린다.

작약의 뿌리는 약재로 쓰이고 있으며 생리불순과 월경통, 산전 산후의 여러 증상 등에 효능이 있어 여성에게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빈혈과 치료, 진통제, 해열제, 이뇨제로 약효가 좋아 차로 마시거나 한약재로 쓰이고 있으며, 최근 관광용으로도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작약꽃은 이달 초 일제히 개화하기 시작해 6월 초까지 꽃을 피워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며, 작약꽃을 보기 위해서는 정읍시 감곡면 동곡길 50-6을 찾으면 된다.

한편 자연가는 전주 한옥 락거리와 작약문화축제, 삼유선식, 아로니아 현미과자 등을 가족이 먹는다는 마음으로 정성스럽게 만들고 있는 마을기업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군 자전거연맹, 세계잼버리 홍보 라이딩 펼쳐

부안군 자전거연맹(회장 김규진)에서는 올해 8월에 열리는 프레젠퍼리와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며 지난 5월 6~7일 서울(국회의사당)에서 부안군청까지 세계잼버리 홍보 종주라이딩을 진행했다.



자전거 연맹 회원들은 1박 2일 동안 서울, 수원, 공주, 익산에 걸쳐 부안군까지 270km의 긴 여정을 잼버리 엠블럼 깃발을 꽂고 종주라이딩을 진행했다.

이튿날인 7일 부안의 관문 동진 나루터에서 11명의 회원들이 합류해 총 30명의 라이더들은 부안 경찰서의 안

전 에스코트를 받으며 부안군청에 무사히 도착하였으며 2023 세계잼버리 성공 구호를 외치며 세계잼버리 홍보 종주라이딩을 마무리했다.

부안군자전거연맹에서는 정기 라이딩 활동 시 부안바실축제 깃발을 장착하고 2013 한강종주, 2015 서울 부안, 2016 제주종주, 2017 동해안일주 등을 통해 부안군 홍보활동을 전개해나 있다. /부안=김석진 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